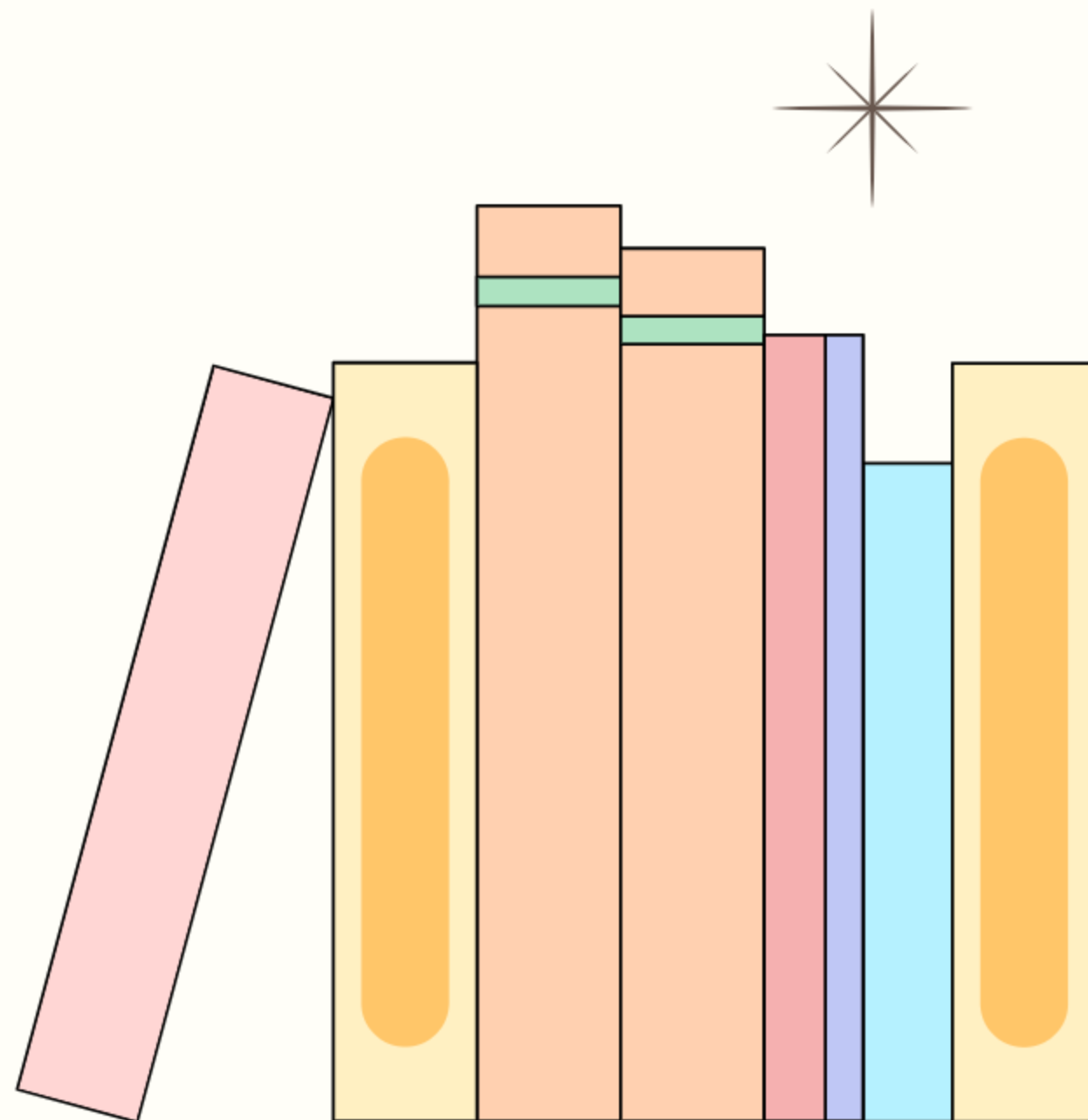


GROUP BOOKiT 2기

꼬꼬마원정대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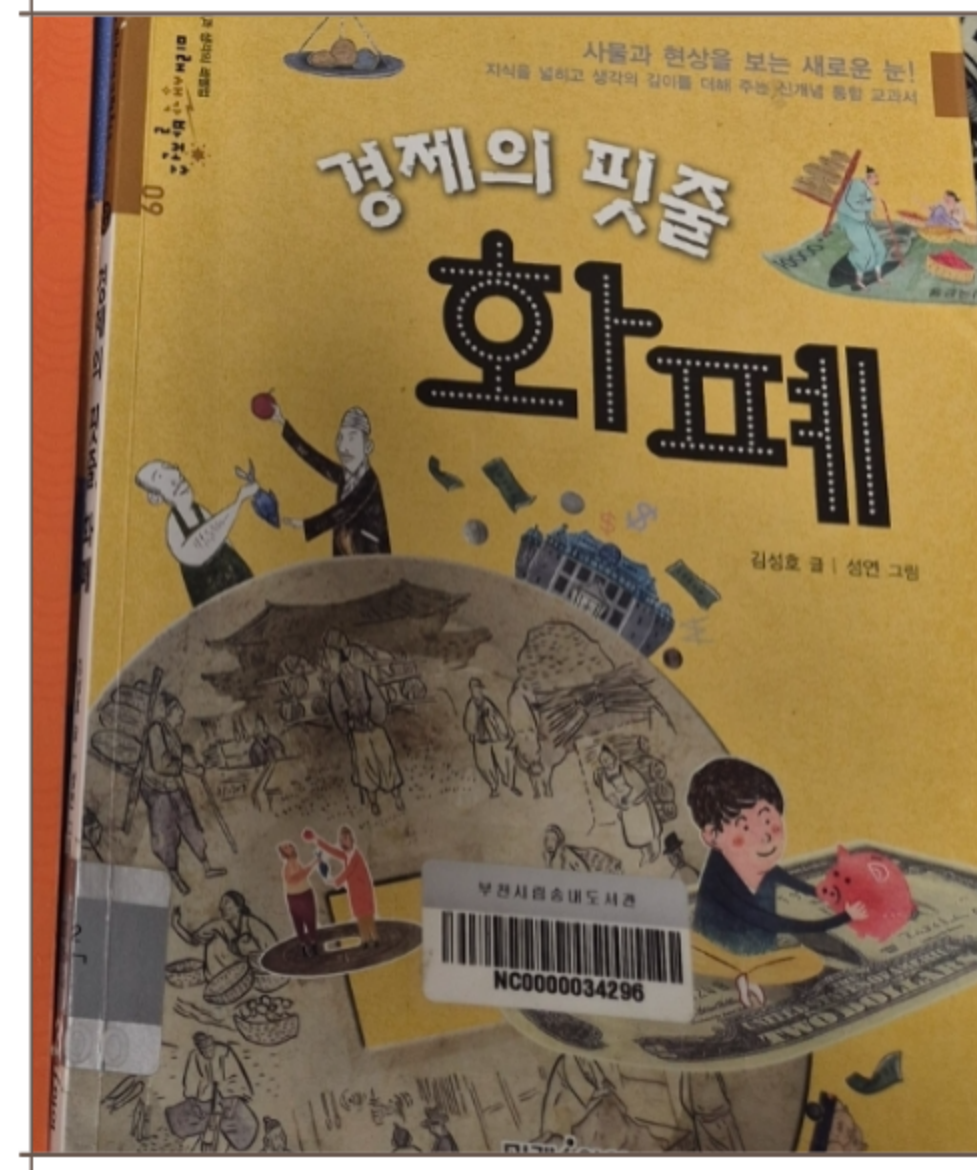
최우영

최하영

박서연

박지율

활동 연계 도서



가정에서 북키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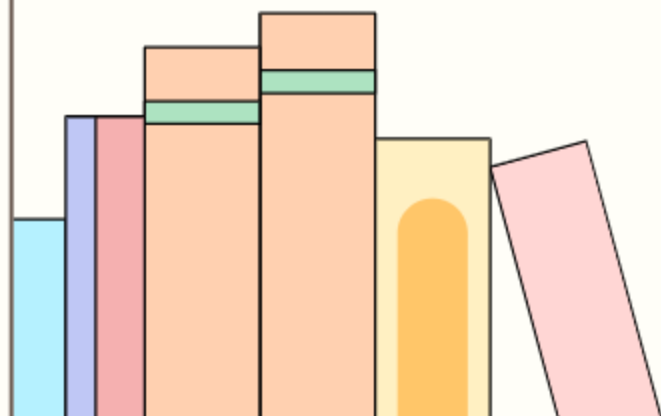


시장 놀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배우고 물건 값을 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며 올바른 구매를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독서 후 연계 활동
샌드위치만들기



활동 후 이야기



우영

시장,마트의 물건이 특별한 날엔 값이 비싸진
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영

시장에서 김장철 배추가 엄청 비싸다는걸 알았다.
할머니 텃밭에서 배추를 가져와야겠다

서연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비싸질까봐 불안하다.

아빠

평소에 엄마가 로켓프레쉬를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쿠팡이 익숙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트와 쿠팡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자주 비교 해 보곤 했지요.
마침 추석 전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배추가 3포기에 2만원이라며 놀라던 엄마를 보고 아이들이 비싼거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었고,
엇그제 함께 돌아본 시장에서는 3포기에 만원 하는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의 수 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간다고 설명 해 주었네요.
그후. 시장 놀이 키트로 놀이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올바르게 구매 하기위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며 배워봅니다.
놀이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재료들로 함께 장을보고 샌드위치 만들기도 해 보았습니다.
신선식품과 달리 공산품은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다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었더니
배추도 통조림으로 만들어 팔면 되겠다고 하더군요^^;